

제 6 차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趙仁淑 / 국제 위원회 위원
by Cho, In - Souk

1. 처음에

아시아지역 건축사협의회 (ARCASIA) 제6차 건축 교육위원회 (ACAЕ) 연례회의는 1992년 10월 24일 파키스탄 라호르市 (Lahore)의 2대 호텔의 하나인 펄 콘티넨탈 호텔 (Pearl Continental Hotel)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 다음날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개최식에 교육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야 했으므로 예년에는 이틀에 나누어 했던 회의를 하루에 마무리하느라 저녁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여정이 멀어 전날밤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 아침부터 바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교육위원회 업무를 맡고계신 전봉수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혼자서 수행해야 했으므로 심적부담이 되었다.

오전회의는 ACAЕ 의장인 말레이시아 (PAM)의 피. 카시 (P. Kasi)의 환영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간단한 자기소개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시 (IAB), 중국 (ASC), 홍콩 (HKIA), 대한민국 (KIRA), 말레이시아 (PAM), 싱가포르 (SIA), 필리핀 (UAP) (SLIA), 파키스탄 (IAP), 일본 (JIA), 인도네시아 (IAI)의 11개 회원국에서 참석하여 15개전체회원국의 정족회원 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최가 선포되었다.

오후 회의에는 마카오 (AAM)까지 합류하여 12개국이 참석하였고 인디아 (IIA)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비자문제 때문에 다음날에야 도착하여 보고서만 제출했다. 올해는 건축학도 잼버리대회가 있었으므로 교육위원회 대표들이 회의뿐 아니라 잼버리대회 개최식 및 학생작품 전시회 개막식, 문화의밤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느라 멀리 떨어져있는 행사장을 단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무척 바빴다.

2. 본 회의에서

주최국인 파키스탄 (IAP)의 대표 후세인 박사 (Dr. Hussain)의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에 대한 설명과 일정표 소개후



11

1991년 중국 베이징에서의 회의록을 약간의 오자수정 및 문구조정후 승인채택하였다.

회의록 중 작년 북경에서 승인 채택된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향후의 잼버리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을 했고 특히 대회 후에 주최국에서 만들어 보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피이드백 용의 자료 및 대회보고서는 단순히 기록차원을 넘어서 격년제로 열리는 다음번 잼버리대회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었다.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ARCASIA Students Jamboree)
- 2) 회원국 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 (Members Report)
- 3) 3개 지역의 활동사항 (Sub-regional activities)
- 4) ACAЕ의 장래 활동 및 계획에 대해
 - 가) 학생 교환 프로그램
 - 나) 각 회원국 대학의 건축과의 학점인정에 대한 정보
 - 다) 회원국의 교육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기본 양식작성
 - 라)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
 - 마) 국제 학생작품 설계경기
 - 바) 건축교육에 관련하여 포럼이나 워크숍 개최
- 5) 1993-1994 임기 ACAЕ 의장 및 지역별 간사국 선정

각 의제별 토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에 대해 파키스탄 (IAP)은
 - 이번 건축학도 잼버리대회는 비교적 잘 준비된 편으로 12개 회원국에서 온 34명의 학생대표 및 200여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고 9개국에서 출품한 학생작품 설계 경기 전시회가 대회장의 한곳인 라호르 국립예술대학 (The National College of Art, Lahore)에서 전시 준비중이라는 점,
 - 이번 대회에는 특히 파키스탄 자국학생들이 대거참석하므로 아시아지역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주최국에서는 현지학교와 긴밀히 손을 잡고 만전을 기해 준비를 했고
 - 작년 북경 회의때 채택되었던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영지침" (The guideline for the holding of Jamborees)이 이번 대회에 훌륭한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이런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좀더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했다.
 - a) 말레이시아 (PAM)에서 만드는 아치아시아 (ARCHASIA magazine)에 잼버리에 대한 기사를 실으므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 경험담을 통해 함께 피이드백 (Feedback)할 수 있게 하는 방법 (Research Publication)

b)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각 회원국에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Video Tape)

c) 행사후에 자세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어 자료로서 배포하는 방법 (Comprehensive Report)

이번대회 주최국인 파키스탄 (IAP)이 좀더 이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서 잼버리대회 행사 및 일정 안내가 있었다.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Students Jamboree)는 24일 도착 및 등록으로 시작하여 28일까지 라호르市的 양대 건축과가 있는 국립예술대학 (NCA)과 공과대학 (The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열리며, 개회식 및 다음과 같은 주요행사로 구성.

a) 세미나 (Seminar)

주제 : 21세기의 토속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 제1부. (Historical Context) - N.C.A. 강당
- 제2부. (Current Situation) - U.E.T. 세미나홀
- 제3부. (Future Direction) - U.E.T. 세미나홀

b) 전시회 (Exhibition)

- ① "21세기의 토속건축"을 주제로 한 설계경기전시회 (Competition drawings)
- ② 선정된 학생작품 전시회 (Selected Works)

- c) 이틀간의 유적지 및 건축물 탐방 (Field Trip)
- d) 문화의밤 (Cultural Evening)
- e) 기타 ACA-S의 개회식 및 전체행사 폐회식 참석

2)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 연례보고

마카오 (AAM)는 아직 건축과가 설립되지 않아서 학점인정이나 자격인정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마카오 (AAM)에 이어 대한민국 (KIRA)은 예년처럼 보고서의 요지만을 설명했다. 공교롭게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본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필자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복사해서 나누어주는 해프닝을 벌였다. 의장 카시 (P. Kasi)가 해마다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KIRA에 찬사의 말을 해주어 그간의 피로를 더는 듯 했다.

필자는 KIRA내에 '교육 및 연구 위원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재로는 어쩔수 없이 국제위원회내에 'ACAE를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연례보고서에는 건축 3단체 (사협회, 학회, 가협회)의 교육관련활동을 요약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례 보고서의 주요 항목들은

1. 1992년 건축사 보수교육
2. 건축계획, 설계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학회)
3. 학생작품 전시회 (사협회, 학회, 가협회, 여성건축가협회)
4. 건축교육에 관한제언 (가협회)
5. 기타-세계건축도보사 '한국의 현대건축'특집에 관한 교신 등이다. 작년회의시 전봉수위원장에서 본 협회의 기구에 교육위원회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어색하고 쑥스러워하셨던 상황이 다시금 생각났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구두로 연례보고를 했고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 회원국은 KIRA를 비롯해서 필리핀 (UAP), 일본 (JIA), 중국 (ASC) 및 인도 (IIA) 등이었다.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 보고중 특기할만한 것은 학점인정 및 자격인정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마카오 (AAM) 경우



이제 첫 대학원 (Post graduate school)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 (PAM)에서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방글라데시 (IAB)에는 영국의 AA school과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외국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2년후 건축사등록할 수 있고 (RAB), 특히 입학시험에는 '드로잉'과목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솜씨를 테스트하는게 아니라 창작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테스트 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IAP) 경우 라호르의 두대학중 건축과 입학시험에 NCA는 영어과목을 보고, UET는 무시시험입학이라고 했다.

일본 (JIA)에서는 일본의70%가 전쟁으로 파괴되어 그동안 건축일이 무척 많았는데 현재 1급 건축사가 20만명 2급 건축사가 40만명정도 있고 최근에 목조건축사라는게 생겨 문화재 보수 및 보전을 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리적,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건축디자인을 결정짓는데 전문가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다는 점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태풍등 의 장애요소가 많아 분야비율로 보면 구조전문가와 환경공학전문가를 제외하면 디자이너는 불과 40%미만이므로 학교에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계결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IAI)는 학점인정에 관해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과 학교간에 서로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한편 건축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건축가들의 역할에 당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국의 건축사들은 생태학적 문제에 더욱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ASC)에서는 그 동안에 크게 늘어난 학생수 및 건축사수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의 건축과는 1927년 난징 (南京)에 있는 국립중앙대학 (National Central University ; 현재는 Southeast University로 개명)에 만들어졌고, 현대건축교육은 19세기에 유행했던 파리예술학교제도에 기원하고 있다. 그후 약 40년간 건축이 급성장하여 1957~1988년 사이에 지방에 세워진 주택들만 해도 8억 m²에 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1949년에 2백여명 있던 건축사가 1990년에도 3만명으로 늘어나 인구 일백만명에 약 30명꼴이 된다. (물론 개발국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방으로 가면 '건축가 없는 건축'등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축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축교육이 발전하게 되었다. 60년대에 8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1990년대에는 54개로 늘어났고 16개 대학에 석사과정이 있고 7개 대학에 박사과정이 있다. 학생 수는 매년 늘어 1977년에 320명이 증가 되었었는데 1988년에는 1,870명이 늘어났다.

건축과에 입학하려면 예술에 대한 소질이나 흥미가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작품을 제출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건축공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다른과로 전과를 해야하는 경우

도 생긴다고 했다.

현재 60년 이상된 건축교육시스템에 2천여명이 넘는 외지인 (new comer)들이 4~5년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 (SLIA)는 대학입시에 I.Q.Test가 결하여 진다고 했고 대학졸업후 건축사실에서 2년간 일하면 RIBA 회원자격이 있으며 3년 후엔 3급, 4년후에 1급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리핀 (UAP)는 최신 커리큘럼을 소개했다.

홍콩 (HKIA)에서는 새로 만드는 건축대학 (new school of Architectur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 대해 소개를 했다.

3) 3개 지역의 활동 사항 (Sub-regional activities)에 대해서는 남아시아지역 (Zone A, 간사국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남동아시아 지역 (Zone B, 간사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동아시아 지역 (Zone C, 간사국 :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고)에서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팔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으나 금년에 한국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므로써 신규회원국인 일본, 마카오, 몽고가 모두 이 지역에 합류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필자가 보고했다.

4) ACAE의 장래 활동 및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 등이 있었다.

가. 학생교환프로그램 (Student exchange programme) 학생들의 회원국 건축탐방 여행을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시아지역 잡지에 페이지를 할애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장인 피.카시 (P. Kasi)와 아시아지역 (ARCHASIA)편집장이 제의했다.

나. 각 회원국 대학의 건축과의 학점인정 (Information on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schools)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각나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의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고 의장이 이 자료들을 취합하여 기본양식을 만들어 배부할 준비를 하기로 했다.

다. 교육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기본양식을 만들어 회원국에 돌릴 것을 제안하고 이것을 파키스탄 (IAP)이 담당하기로 했다. (National Institutes Standard Format)

라. "아시아지역 대학교 건축과 현황자료집" (Handbook of asian schools of architecture)을 홍콩 (HKIA)이 중국, 인도, 대한민국,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홍콩,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의 9개국의 자료를 취합하여 복사본을 만들어 배포했고 아직 자료를 미처 못보낸 나라에서는 지금이라도 보내면 추가하기로 했다. 출판할 수 있는 독자를 만나거나 스스로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우선 자료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마. 국제 학생작품 설계경기 (International Student Competition) 아시아지역에서 학생작품 설계경기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 했고, 참여작품은 국제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ARCASIA 행사와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재정지원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일단 일본 (JIA)이 이문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경기 주최를 계획해 보기로 했다.

바. 건축교육과 관련된 포럼이나 워크숍 (Forum/Workshop on architectural education issues) 연례 활동사항 보고에

협의되었듯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첫째, 아시아 특성에 맞는 건축교육제도 및 그 제도의 발전에 대해

둘째, 건축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의 문제점과 회원국의 학교들간의 상호비교점에 대해

셋째, 본국의 학위 및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에 대해

넷째, 건축과 졸업생들의 실무분야 진출에 대한 장래성에 대해

다섯째, 인구비례와 건축사의 숫자 및 학생수 그리고 장래필요성에 대해

여섯째, 각국의 전통을 보존하는 분야의 건축사들에 대한 구분, 즉 일본의 Bare-Foot Architects 나 목조건축사 또는 인도네시아의 Undangi들과 같은 건축사에 대한 구분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ACAE회의는 시간이나 참석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될수 있는 곳이 마련되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고 말레이시아 (PAM)는 ARCASIA회원국들의 건축대학의 학장내지는 총장급회의를 제안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런 행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문제를 자금지족 또는 스폰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ACAE 의장 및 말레이시아 (PAM)에서 포럼이나 워크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기로 했다.

5) 1993~1994임기의 ACAE 의장 및 지역별 간사국 선거 현재의 의장 피.카시 (P. Kasi)는 차기의장을 맡기를 고사했으나 적당한 지원자가 없었고, 스리랑카 (SLIA)의 제안 및 필리핀 (UAP)의 제청에 의해 연임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지역별 차기 간사국으로는 Zone-A에 파키스탄 (IAP), Zone-B에 싱가포르 (SIA) 그리고 Zone-C에 홍콩 (HKIA)이 지명되었다. KIRA는 동아시아지역 간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벗게 되었다.



① ACA-5 Al-hamla Art Canter
② 잼버리 개최식후 NCA 학장과 ACAE 각국 대표들의 간담회
③ ACAE~4일 오후회의의 광경

3. 마무리에

필자는 의장인 피.카시 (P.Kasi)씨가 다음날 이사회에서 밤새 작성한 ACAE보고서를 내놓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웠다. 필자는 한국에 돌아오면 도저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급적 현지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작성하였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쫓기고 수면도 부족한 실정이라 자료분류조차 못하고 귀국하였는데 거의 같은 일정은 보내면서 하룻밤사이에 정확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장의 능력에 감탄했다.

NCA에서 열린 학생잼버리대회 개최식 및 전시회 개막식에는 라호르시가 있는 펀잡 (Punjab)의 주지사 (Governor)가 초청되었다.

ACAE의장이 잼버리 참가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두학생이 영어가 서투르고 발표문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고했다. 무엇인가가 착오가 생긴 것을 알고 개최식 때 알아보니 우리학생들의 사본 준비가 안되어 못낸 것이라 했다. 준비한 슬라이드도 도착하지 않은 짐 속에 있고 내용이 미흡해 비행기 속에서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님께 퇴고를 받은 원고를 겨우 연필로 써놓은 상태였다.

동행한 이남식 총무과장이 세미나 진행요원과 협의해서 순서에 집어넣고 NCA학장비서실에서 타자를 치게한 후 피.카씨에게도 얘기하고 해서 간신히 처리가 되었다. 학생들 행사장과 이사회나 교육위원회 행사장이 서로 장소가 달랐으므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때까지 파악이 어려웠다. 알수 있었다 해도 필자는 ACAE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어쩔수 없었을 것이었다.

KIRA의 공모전 요강은 잼버리 주제가 정해지기 전에 발표되었으므로 잼버리 주제에 맞는 작품준비도 못했고 더구나 주최측의 늦은 연락으로 말미암아 발표문을 작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고 영어로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은 물론 협회담당자로서도 무척 벅찬 일이었다.

NCA에서 열린 학생작품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표현방법은 세련된 것 같지 않았으나 내용은 아시아 각 나라의 특성을 엿볼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고 오히려 순진무구하게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종 대전등에 출품되는 작품들, 즉 여과장치없이 쏟아지는 외래잡지의 영향을 받아 기교넘치고 정수가 없어보이는 작품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문화의 밤에는 라호르시 (Lahore)의 양대 건축과 NCA와 UET 학생들의 걸작을 보여 주었는데 역시 Art를 배경으로 한다는 자부심 갖고있는 국립예술대학 (NCA) 건축과 학생들의 판토마임은 공과대학 (UET)의 건축과 학생들이 보여준 연극과는 비

교가 안되는 작품이었다.

참가학생들과 ACAE대표들의 간담회는 27일 오후5시 아와리 호텔 (Avari Hotel) 회의실 (Khursid Mahal Hall)에서 있었다. 주최측은 차기 잼버리대회를 위해 강평회를 갖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 사실 아시아의 국가들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때문에 전체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않은 데다가 느낀 바가 있어도 발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주최측으로부터의 연락이 너무 늦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사항, 행사장이나 숙소의 시설이 너무 낡았었다는점, 세미나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시작품에 대한 평 (評)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 잼버리 대회와 Study Tour를 구분했으면 하는 의견들이었다.

Study Tour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고싶어 했는데 1. 입국비자 2. 기금 3. 어떤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학생교환 문제라든가 학생활동을 소개할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 그리고 각종시상제도 (Awards ; 설계분야, 연구분야 그리고 Arcasia 학생건축상)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미래의 건축사들이 지금의 건축학도들을 위해 ACAE의장 피.카씨 (P.Kasi)가 개인적으로 아치아시아 (ARCHASIA)의 우선 두회분의 (2-Issues) 학생들을 위한 페이지 할애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본 협회내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기구조차 없는 우리에게 비해 장래의 건축사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는 다른 나라의 ACAE 대표들을 대할 때 속으로 부끄러웠다.

필자 또한 교육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당장은 속수무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 및 연구 위원회'라도 만들어 건축학도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만 장래의 본 협회의 앞날도 보장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번 교육위원회 연례보고서에는 "국제 위원회 내의 ACAE 위한 소 위원회"나 "건축 3단계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보고"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맺는다.

제4회 아시아 학생 건축잼버리를 다녀와서

정은성+김태훈 / 한양대 건축공학과 3년

by Jeong, Eun - Sung & Kim, Tae - Hoon

지난 4월 건축사협회가 주관한 한국건축전의 학생부문에서 우리의 작품 (Teenage Community)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학생 건축잼버리대회에 한국학생대표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 학생 건축 잼버리'는 아시아지역 건축사 협의회 (ARCAASIA :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의 학생행사로 재능있는 아시아지역 건축과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며 차세대의 건축가로서 다른나라의 동시대의 현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며, 격년으로 개최되어 공동의

주제아래 세미나와 작품전시, 건축물답사 등을 하게 된다. 라호르에서는 25일과 26일 아침 참가한 대표들의 작품전시와 라호르 학생들의 작품전시가 있었고, 이후 순서로는 3회로 나누어진 세미나가 열렸다. 27일과 28일 우리는 라호르 포트와 월드시티, 와자르 칸의 모스크를 관광했다.

이번 잼버리가 개최된 파키스탄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이다. 과거 인더스문명의 풍요로운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라호르시는 이 나라의 남부지역의 도시이다.

이번 잼버리에는 아시아지역의 국가 가운데 일본,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개최국인 파키스탄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10월 23일 아침 우리는 협회공식대표단과 함께 방콕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가는 여로에 올랐다. 가는 동안 김지덕 선생님은 학생잼버리의 목적과 지난해 회의 때의 느끼신 점등을 설명해 주셨고, 언어 등 문제가 많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이상해 교수님은 부족한 영어로 문제가 많은 우리 글을 정성껏 수정해 주셨다. 방콕을 거쳐 라호르에 도착한 것은 그곳시각 1시경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문제가 생겼는지 나오질 않아 우리는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숙소인 카리타스 파키스탄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숙소에는 남학생들만 머물렀는데, 이미 일본대표를 비롯한 몇 나라 학생들이 도착해 있었다. 시간이 새벽2시를 넘었는데도 깨어있던 일본학생들은 못다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했다. 첫날인 24일은 공식일정이 없었으므로 무리로 나뉘어 시내구경과 쇼핑을 했다. 저녁때가 되자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학생대표들이 도착했다. 방글라데시 대표들은 다음날 저녁무렵에야 만나 통성명을 할 수 있었다.

라호르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어수선했었다. 거리에는 대형차량보다는 자그마한 차들이 무리를 지어 오가고 마차와 오토바이, 소형택시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관공서 주변에는 총을 맨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시위를 막기 위한 특수차량들도 보였다. 시장은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을 연상시켰다. 상점들은 천장도 없이 벽으로만 영역을 나누며 연이어 있어서 한쪽에서 보면 여러개의 텐트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 길들이 만나는 곳에 트인 공간이 있어 햇빛을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점군의 입구를 나타내주어 규모가 작고 수수하기는 해도 재미있었다.

25일 오전에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작품과 NCA학생들의 프리젠테이션 전시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의 작품은 프리젠테이션 수법에서도 각기 다른 냄새를 느낄 수가 있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토속적인 건물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부분적인 이미지를 살리려고 애쓴것 같았다. 홍콩학생들은 실제로 지어져 가는 전통극극공연장의 공사모습과 디테일 등을 표현했는데 공연하고 있는 배우처럼 과장되고 화려한 장식이 입혀졌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중국인들다운 소재라 생각했다.

일본대표인 요시노리 앤도의 작품은 기본적인 조형에서 두축이 애매하게 틀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앤도는 각각이 진북과 자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으나, 우리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북은 도시축에 의한 것이고 햇빛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구보타의 작품 또한 흥미로웠는데 앤도 다다오를 연상케하는 작품이었다. 우리는 주제가 다른 관계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한번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었다. 주제가 달랐던 것은 한국건축전의 공모시기와 잼버리의 주제결정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25일 오후부터 26일 저녁까지 3회로 나누어 개최됐다.

1. SESSION 1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모두 네 나라의 대표가 발표했다.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NCA(National College of Art)의 사드자르는 토속건축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조건들에 관해 설명했다. “토속건축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지 않고, 어떤 외부의 간섭없이 의지와 필요에 따라 환경과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토속건축은 어떤 지방 건축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념적인 건축물이 토속일 수 있겠는가? 인도의 타지마할이 토속인가,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공식적’인 건축이다. 이곳 라호르의 월드시티는 기념적인 건물이면서도 토속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데, 무게화한 도시구조, 창이 없는 가옥들이 기념적이면서도 토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리랑카의 세네카는 자국의 토속건축에 관해 설명했다. 스리랑카의 건축은 과거 오랫동안 인도의 강한 영향아래 발전했으며,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불교의 도래는 대단한 것이었다.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영국식민통치의 영향은 기후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낳았다. 독립 이후에는 많은 건축가들이 아이덴티티를 찾기위해 노력했다. 형태를 모방하려했던 시도들은 서양의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는 서구적인 건물 표피에 하나의 장식을 덧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노력들은 현대의 상황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전통적인 개념의 해석에서 얻으려는 시도로 이어져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신의 작품 ‘가무다와’에서 건축가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조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건축물을 꾸민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발표에 나선 NCA의 아예샤 애자르는 많은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파키스탄의 토속적인 건물들을 소개했다. 사용된 재료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한이나 범규가 없이 오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건축의 보편적인 사상들에 관해 발표했다. 발표후의 토론에서는“토속건축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전통건축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들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토속건축이란 형태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평범한 공간이다.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정치제도, 관습들이 변해가듯이 건축의 형태도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형태는 바뀌더라도 그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습관,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름이난 토속건축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싱가포르대표의 말에 박수로서 동의를 표시하며 결론을 내렸다.

2. SESSION 2

-현재의 상황에 관하여-

여섯나라의 대표가 발표했다.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U.E.T의 아즈마는 “현대에는 많은 교류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식민지잔재의 청산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구화된 교육은 자연히 학생들을 서양 일변도로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적어도 정규과정에서는 토속의 건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대표인 앤도와 구보타는 전날 전시되었던 자신들의 작품의 개념을 설명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앤도는 “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토속건축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산업화의 모더니즘은 긍정적인 면도 또한 지녔다고 본다. 토속건축을 생각하면서 공업화된 토속건축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다.”는 자신의 개념을 설명했다. 틀어진 두축의 사이로 건물의 모든 부문에 빛을 끌어들이



판집 주지사 (Governor of Punjab) 잼버리 참가 학생들과 ACAC 각국 대표들

이고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물을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보타는 워터게이트라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도시는 점점 더 고밀도화 되어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이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는 경우, 가까이에 있으나 사람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인 관계, 서로 어우러져 자연이 생활 가운데 있고 그 속에서 즐기며 느끼게 되는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프로젝트의 주제였다.”고 설명했다.

3. SESSION 3

-미래의 방향에 관하여-

먼저 발표에 나선 에이파 애자르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위해 건축의 스타일을 넘어서 도시조직에 새로운 부분들을 간섭하고 조화시켜야 하며 이런 프로그램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디자인어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더불어 경제를 의식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학원과 연구소 실무자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팔아즈다니아는 표현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에서 토속 건축의 표현주의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토속건축물들은 기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형태자체가 기능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발표와 여러컷의 슬라이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학생 5명이 함께 강단에 올라 오픈세미나를 열었다. 5명이 공동연구 계획한 프로젝트를 역사적 배경, 공간의 이미지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진행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체측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일은 너무 권위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토속건축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자국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론과 철학을 세워야 하며 제도상의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7일 아침 우리는 라호르 포트로 향했다. 라호르 포트는 입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은 분수에서 시작되어 얇고 길게 흐르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 가면서 커다란 연못이 되어 다시 흘러갔다. 그러나, 물이 부분

적으로만 고여있고, 분수도 연못주위에만 솟아올라 분위기는 훨씬 감했다.

저녁에는 Youth Hostel로 가서 못다한 세미나를 계속하게 되었다. 싱가포르학생들과 방글라데시 학생들의 발표가 있었다. 싱가포르학생들의 주장은 이미 발언했던 내용과 별차이가 없었는데 요컨대 “토속건축을 말할 때 우리는 형태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되며 토속건축은 형태이상의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들은 슬라이드로 싱가포르의 자연과 토속적인 건물들의 분위기, 이미지들을 보여준 다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의 형태는 극히 현대적이지만 요소 요소의 분위기와 이미지들은 토속의 맥을 잇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토속공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에는 늦은 시각으로 길지는 않았지만 장기자랑이 있었다. 필리핀의 멜빈이 유명한 팝송을 부를 때는 학생들 모두가 흥얼거리며 따라하기도 했고 홍콩이나 파키스탄의 여학생들이 독창할 때는 모두가 매료되었다. 언어와 내용이 모두 다른 노래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 아시아인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28일 아침 우리는 월드시티와 와자르칸의 모스크를 방문했다. 월드시티는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도 변화하는 공간의 구성은 재치가 있었다. 우리로 장식된 궁전은 이들의 장식에 대한 해안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안마당에는 흙처럼 파인 수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더운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란다. 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들의 디테일은 가구식구조의 공포형태와 유사해서 흥미로웠다. 와자르칸의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했다. 여의도광장 반만큼의 넓이에 붉은색 돌들이 깔려진 커다란 광장이 모스크의 전단부를 위엄스레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맨발로 드나들게 하다니 하고 놀라는 동안 차량시간 관계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못내 아쉬웠다.

저녁에는 우리 학생대표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교육위원회 담당자들과의 대담이 있었다. 잼버리를 위한 제안들이 오고갔다. 잼버리 참가학생들의 협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고, 서로간의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간행물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꿈도 야무진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세미나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복사본 정도로 만들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류에 관한 문제는 서로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모든행사들이 아침늦게 시작되어 저녁 늦게 끝났는데 그것이 이곳의 습관인것 같았다. 파키스탄은 이른바 디오니소스 문화권에 속하는 곳이다. 말은 잘통하지 않았지만 힘들게 나눈 몇마디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는 모습과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큰 교훈은 우리의 위치가 어느곳에 와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받고있는 교육이 다른나라들과 비교하여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건축가가 되기위한 긴 여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대한건축사협회와 준비하는 과정과 현지에서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